民族女性教育의 요람, 同德女大

金 鍾 協
(同德女大 總長)

1. 大學의 設立背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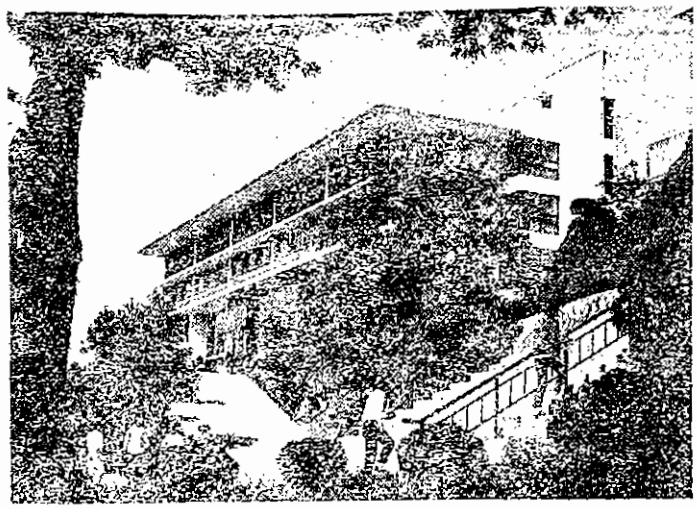
本 大學은 1950년 5월 27일에 4년제 女子大學으로 文敎部의 설립 인가를 받았다. 당시의 中學校는 6년제였는데 4년 이상 수료자에게 입학 자격이 있었으므로 國民學校에서부터 총 수학 연한을 따진다면 오늘날의 전문대학(2년제)에 해당되는 셈이다.

설립자는 初代 學長을 역임한 故 春江 趙東植 博士로, 1961년까지 學長으로서 同德의 基礎를 마련하였다(당시 入學生은 88명이었음). 本 大學은 同德女學園이 유지·경영하는 것으로서 同德女學園의 근원은 1908년의 東婦女義塾의 출발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이 女義塾의 설립 목적은 救國과 愛族에 있었다. 1905년에 치욕의 乙巳保護條約 체결이 있었고, 日帝의 統監府設置, 國軍解散, 抗日義兵蜂起, 東拓會社設置, 韓日合併條約체결 등으로 이어지는 大韓帝國의 멸망 과정과 日帝에 대한 韓民族의 굴욕적 패배 과정을 지켜 본 趙博士는 敎育이야말로 나라를 일으켜 세우고 民族을 구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하여 赤手空拳으로 학교를 시작하였던 것이다. 특히 趙博士는 그당시 女性敎育이 전무하다는 것에 주목하고 女性敎育이야말로 가장 基本的인 敎育이라는 믿음에서 시작한 것이 바로 오늘날 활발해진 韓國 女性敎育의 基盤이 된 것이다.

本 大學은 8·15 해방 후에 設立되었지만 同德女學園은 이미 1910년에 女子高等普通學校를 창설하여 오직 우리 民族의 힘으로 女子高等普通敎育을 實施한 先例를 남겼다. 그리하여 趙博士가 60여 년간을 가꾸어 온 女性敎育의 基盤 위에 本 大學이 女性敎育의 最高完成機關으로서 계획된 것이다. 따라서 본 대학의 特色은 우리 民族의 힘으로 建設되고, 日帝 36년간의 압박과 설움을 견디어 낸 成熟한 敎育風土와 自立·自敬의 精神이 바탕이 된 것을 첫째로 내세울 수 있다.

다음의 특색으로는 우리의 傳統的 文化遺産인 儒敎文化에 대한 認識과 美風良俗에 대한 崇尙精神을 교육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그러나 고루한 盲目的인 崇尙이 아니라 '新女性'으로서 現代感覺과 知性을 겸비하면서도 韓國女性으로서의 골격을 지니도록 세심한 敎育方針을 세우고 있다. 그리하여 學訓도 道義·眞理·和協으로 제정하여 東洋道義思想을 항상 교육하면서 韓國的 賢母良妻로서의 修養을 강조하고 있다.

本 大學이 1950년 6월 2일에 開校한 지 한달도 못되어 발발한 6·25 전쟁으로 인하여 釜山 피난지에서 갖은 苦生을 하면서도 戰時聯合大學의



◁同德女大는 미래지향적 知性과 敎養을 함양하는 敎養敎育에 힘쓰고 있다(사진은 대학원 건물).

傘下에서 學生敎育을 계속하였다.

1952년 3월에는 4년제 단과대학(현재의 大學制와 같음)으로 재인가를 받게 되었다. 1953년 休戰協定으로 大學을 서울로 遷都하게 되고 관훈동 舊 同德女子國民學校 校舍를 임시 교사로 하여 國文學科 13명, 商學科 15명, 家政學科 25명 등 모두 53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당시 학장에는 趙東植, 부학장 趙容郁, 학생과장 朴有分, 주요 강사는 任晳宰, 吳河淵, 金桂淑, 金基錫, 韓悌泳, 金粉玉, 李景寧, 車相轅, 孫宗珍, 李錫基 선생 등이다.

1955년에는 學則을 변경하여 藥學科(60명 정원)를 신설하고 國文學科를 文學科(240명 정원)로 변경하여 國文學專攻, 英文學專攻으로 구분하도록 같은 해 2월 25일에 文敎部의 認可를 받았다.

1950년부터 1958년까지의 戰時·戰後의 환난시기에 있어서는 社會 전반의 經濟的 貧困 때문에 여자대학으로 진학하는 학생이 정원에 미달하였다. 따라서 大學의 運營도 상당히 힘들었기 때문에 趙東植 學長을 비롯한 敎職員의 고생은 형용키 어려울 정도였다.

本 大學은 1957년에 初級大學을 併設하고 1960년부터는 昼間部와 夜間部를 두어 國文專攻·英文專攻(文學部) 및 家政專攻·被服專攻·生活美術專攻(家政科) 등 모두 400명의 학생이 입학하였다. 1961년 6월에는 관훈동 151번지 자리에 연건평 1,034평의 콘크리트 건물을 준공하여 교사로 사용하였다. 원래 이 자리는 同德女學園의 요람으로서 1911년에 서린동 교사에서 이전한 뒤 머물던 곳이다.

1961년 9월 故 春江 趙東植博士는 學長職을 辭任하고 同德女學園의 理事長 및 명예학장으로 추대되었다. 趙博士는 1908년부터 1961년까지 50여 년간을 일선 校長으로서 또는 學長으로서 學園 設立과 經營 및 일선교육이라는 三位一體의 育英事業에 평생을 바쳤다. 그리하여 1969년 12월 24일 83세를 一期로 서거할 때까지 우리나라 最高最大의 女性敎育者로서 그 名聲을 떨쳤으며, 오늘의 大同德의 基盤을 닦고 發展을 이룩하였다.

趙博士는 비단 同德뿐만 아니라 成均館大學의 初代 理事長으로서, 또한 誠明女大 등 많은 私立大學의 산파역을 맡아 보았으며, 사학재단연합회회장, 대한교련회장, 교과서주식회사사장, 독립유공자후원회장 등 실로 우리나라 제일가는 育英事業家로서, 全國 私學의 指導者로서 많은 활약을 하였다. 따라서 同德女大를 논할 때 趙東植博士에 대한 소개를 빼놓을 수 없는 것이다.

2. 大學의 現況

본 대학을 維持·經營하는 母體는 學校法人 同德女園이다. 현재의 理事長은 趙容珏博士이며

1976년 취임 이후 불철주야로 財團과 大學 및 傘下 各級學校의 發展을 위하여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趙理事長의 노력에 의하여 많은 建物과 校舍가 들어서고 財團의 財産도 팽창하였다. 필자는 1983년에 당시 單科大學이었을 때 學長으로 취임하여 大學의 行政과 學事를 맡고 있다가 1987년 10월 綜合大學으로 전환된 다음 1988년 3월에 初代總長으로 취임하게 되었다.

본 대학이 1950년에 4년제 대학으로 출범한 이후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成長과 發展을 거듭하였으나, 저조한 女性 敎育熱과 女性地位의 低位 등으로 인하여 綜合大學으로의 전환이 상당히 늦어진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명실공히 국내 유수한 女子大學의 대열로 들어서게 되었다. 현재 人文大, 社會科學大, 自然科學大, 藝術大, 藥學大 등 5개 단과대학이 있으며, 대학원과 부속 유치원이 있다. 學科로는 국어국문학과, 영어영문학과, 일어일문학과, 불어불문학과, 독어독문학과, 국사학과(이상 인문대), 경영학과(Ⅰ, Ⅱ부), 무역학과, 경제학과, 도서관학과(이상 사회대), 식품영양학과, 의류학과, 가정학과, 건강관리학과, 전자계산학과, 아동학과, 체육학과(이상 자연대), 약학과(약대), 회화과, 생활미술과, 산업디자인학과, 음악과(이상 예술대), 교양교직학부 등 22개 학과가 있다. 대학원에는 가정학과, 약학과, 식품영양학과, 경영학과, 국어국문학과, 체육학과, 회화과, 미술학과, 음악과와 박사과정으로서 약학과가 있다. 대학 부설 연구소로는 한국학연구소, 경영관리연구소, 새마을연구소, 학생생활연구소, 환경위생연구소, 산업디자인연구소, 천연약품자원연구소 등이 있다. 또한 중요한 부속 기관으로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현재 개축중), 방송국, 출판부, 전자계산소, 종합기기분석실, 어학교육실험실 등이 있다.

부설연구소 중에서 산업디자인연구소는 同科에 속하는 연구소로서 연구 활동이 활발하다. 同科는 교육부에 특성 학과로 등록되어 있는데, 매년 전국 산업디자인 전시회에 작품을 출품하여 빠짐없이 入賞하고 있다. 천연약품자원연구소는 출범한 지 몇 해 안 되지만 과기처 등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아 활발하게 연구하고 있다. 경영관리연구소는 창설된 지 10여 년이 되는 관록있는 연구소로서 경영학과, 경제학과, 무역학과 등의 교수진이 원가계산, 생산성 향상 등의 문제를 중심으로 합동 연구를 하고 있으며 매년 각계로부터 연구비를 받고 있다.

전자계산소는 '87년부터 가동하고 있으며 그 재원은 IBRD와 교비로 충당하고 있다. 보유하고 있는 컴퓨터의 종류를 들면, MV/15000~10(마이크로급), 바코드시스템 1셋트, 하드카피프린터, OMR 독해기 2대, AV/6220(미니급), 라인프린터 2대, 도트프린터 15대, PC로는 TG 286이 16대, TGXT가 100대, 교수 연구 지원용으로는 AV/400, SUN 마이크로 2대, Mac. SE 4대, Mac. Ⅱ 1대, 레이저프린터 2대, 디지타이저 5대, 프롯터 1대, TG 386 6대 등이며 이를 LAN(지역전산망)과 연결하여 가동중에 있다. 이는 학사업무, 학생 실습, 교수 연구용으로 제공되고 있다.

종합기기분석실은 '87년에 IBRD와 본 대학 교비로 창설되었으며 연구실은 완전공조(空氣調節)가 되어 있고, 주요 기기로는 HPLC, UV, 분광광도계, Gas-Chromatograph, Physiograph (약리학 연구용), 전기영동기기셋트, 회전식점도계, 냉동원심분리기 등이 구비되어 있다. 이는 대학원의 석·박사과정 학생과 학부 상급 학년 학생 및 교수 연구용으로 충당되고 있다. 本大學은 입지 조건이 좋아 가까운 이웃으로 경희대, 고려대, 광운대, 국민대, 덕성여대, 성신여대, 한국외대 등이 있어서 교수의 연구 활동에 많은 협조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기쁘고 다행한 일로 생각하고 있다. 특히, 자연계열의 교수와 학생들에게 유리한 것은 과학원(KAIST), 과학기술연구소(KIST), 산업기술정보원(KINITI, 이전의 KORSTIC),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이 근처에 자리잡고 있어 학술 연구 잡지, 도서, 기자재 이용 등을 통해 학술연구와 학생의 학습 활동에 있어서 크게 도움을 받고 있다. 비록 아직도 본 대학은 미비한 점이 많으나 이와 같은 좋은 이웃과 긴밀한 協助關係가 있음은 극히 고무적이다.

本 大學의 학생 수는 학부가 3,700명, 대학원이 100명, 敎授數는 100명, 助敎 55명, 시

간 강사 180명, 행정 사무 직원은 용원까지 합하여 80명에 이른다. 부속유치원은 교사 13명, 학생 30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대학에 강사 수가 많은 이유는 예술대학과 체육학과의 특수성 때문에 이들 학과에 많은 강사가 배분되어 있기 때문이다. 졸업생은 현재까지 12,000 여 명이 배출되어 사회의 각계각층에서 활약하고 있는데, 특히 교육계에 많다.

校地는 약 25,000여 평으로 상당히 협소하다. 그 이유는 인접한 임야 13만 평까지 매수할 계획으로 1964년에 設立者인 趙博士가 우선적으로 25,000평을 사들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원 소유주와 정부와의 소송 사건 때문에 나머지 13만 평의 토지를 매수하지 못하게 되었고 買收計劃에 있는 토지는 현재 文化財管理局 소유로 되어 있다. 그러므로 大學의 숙원 사업으로서 校地의 확장이 가장 시급한 실정이다. 그러나 본 대학은 협소한 공간이나마 이를 충분하게 활용하고 있으며 건물 이외의 공간은 훌륭한 樹種의 庭園木으로 잘 가꾸어 놓고 있다. TV 방송국 등이 본 캠퍼스를 야외 촬영 장소로 자주 이용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 아름다움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대학 건물은 총 14,400여 평(43,176m²)으로서 현재 학생 교육에는 秋毫의 지장도 없으며, 오히려 완전 활용을 하면 여유가 있을 정도이다. 그리고 작년말에 완공한 同仁館은 종합체육관으로서 국제 규격에 맞는 실내체육관이며, 무용연습실, 강의실, 체육 교수 연구실 등을 구비하고 있고 그 施設은 완벽에 가깝다.

本 大學의 부속유치원은 건물(425평)이 아담하고 건물 주위의 정원이 아름답다. 그리하여 설립된 지 10년만에 일약 우리나라의 첫째 가는 '몬테소리' 유치원으로 浮上하였다. 물론 건물이나 정원보다도 그 유치원을 움직이는 원장, 교사 및 교육과정과 교육내용이 훌륭하기 때문임은 두말 할 나위가 없다. 더욱이 유아교육을 뒷받침하기 위한 兒童學科 교수·학생들의 열의와 정성은 유치원 못지 않게 活性化되어 있다.

종전에 체육관 겸 강당으로 사용하던 공간은 학생회 서클과 대의원회 사무실용으로 改造하여 학생 전용으로 사용케하였다. 물론 그밖에도 한 건물 전체를 학생을 위한 시설로 이용하고 있는데, 이 건물을 學生館이라 부르고 있다. 이 學生會館은 이미 1975년에 준공되었으며 총건평 882평이다. 대학 신문사와 보건소는 별도의 건물에 있다. 학생 활동은 상당히 활발하여 전국적인 學術行事, 藝術·體育行事에 빠짐없이 참여하고 있으며 제3·5공화국 시대에는 과격한 학생 데모가 빈발하여 한때는 學生指導가 곤란하기도 하였다.

강원도 양양군 속초해수욕장 뒤에 바다를 내려다 볼 수 있는 아담한 修鍊館(건평 247평)을 '88년 7월에 준공하였다. 이 수련관은 年中無休로 교수·학생·동덕가족이 활용할 수 있고 準호텔급 시설에 취사는 각자의 취향에 맞게 취사장에서 스스로 할 수 있는데, 東海와 雪岳의 山海珍味를 자기 스스로 조리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서울에서 약간 멀기는 하지만 교통이 편리해짐에 따라서 장래에 크게 애용될 곳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서울 北漢山 기슭 平倉洞 산 중턱에 아담한 洋屋을 매입하여 學生生活文化館으로 충당하고 있으며, 이 곳을 女性敎養을 生活化시키는 道場으로 사용할 계획을 세워 놓고 있다. 금년 3월부터는 전교생을 대상으로 1日 또는 1泊 2日 단위로 수양교육을 하고자 하는데, 그야말로 敎養女性을 위한 실제 훈련 코스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本 大學은 특별히 敎養敎職學部를 편성해 두고 있다. 學科가 많은 다른 큰 대학에는 哲學科, 倫理學科, 政治學科, 法學科, 數學科, 物理學科, 化學科, 生物學科 등이 설치되어 있으나 본 대학에는 이러한 學科가 없기 때문에 교양교직학부에 哲學, 倫理學, 化學 등의 분야에 專任敎授를 두어 敎養敎育을 보다 더 철저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다. 敎養課程을 專任敎授가 담당하여 敎養敎育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目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것이다. 敎職課程은 많은 여학생들이 선호하는 과정이다. 여성의 직업으로서 敎師職을 원하기 때문이다. 兒童學科의 敎授와 더불어 敎職課程을 전임교수로 충당할 底力이 본 대학에는 있다.

語文學系列 學生의 語學實習室은 특히 역점을 두어 시설되어 있다. 英語, 佛語, 獨語, 日語

전공 학생과 그외에 語學을 부전공으로 하는 학생이 이용할 수 있도록 카세트 및 비디오 필름 등의 모든 資料와 시설을 갖추고 있다. 컴퓨터의 경우에도 전산학과 이외의 학생이 이용할 수 있다.

3. 大學發展을 위한 構想

大學設立의 취지인 愛國愛族 精神의 敎育은 校是에 해당한다. 20 세기초 亡國過程에서의 민족교육과 어엿한 獨立國家에서의 민족 교육 간에는 내용의 차이가 다소 있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를 향한 獨立國 내지 産業國으로서 세계 만방으로부터 존경과 선망을 받고 있는 만큼 협소하고 배타적인 民族主義敎育은 시대에 맞지 않은 것으로 보고, 세계 만방과 善隣關係를 맺으면서 善意의 경쟁을 통하여 共存共榮하는 民族敎育으로 나아갈 방침이다.

現下 우리나라는 國際化와 産業化, 나아가서는 脫工業化 내지 情報化 社會를 향하여 치닫고 있다. 이와 같은 점들을 볼 때 앞으로 '高級人力'의 수요가 더욱 급증할 것이며 知識集約的·技術集約的인 상황으로 국가가 발전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렇게 될 때 '女性高級人力'의 수요는 남성 인력 못지 않게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女性敎育에 있어서 專門性의 提高는 필연적으로 요구될 것이므로 良質의 敎育을 받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고도의 專門敎育을 施行하기 위하여 敎授人力과 敎育環境의 改善을 서두르고 있다.

國際化時代를 대비하고 또 한편으로는 다가올 環太平洋時代의 주역을 바라보면서 본 대학의 在學生에게는 미래를 꿰뚫어 보는 폭 넓은 敎養과 知性을 겸비하고 外國語 실력을 갖추게 하기 위하여 계속 敎養課程에 역점을 둘 것이다.

현재 본 대학은 미국의 Hawaii Loa 대학(1984년) 및 뉴햄프셔 주에 있는 Rivier 대학(1990년)과 자매 결연을 맺고 있으며, 敎授·學生 및 行政職員의 硏修 및 交流, 그리고 學術情報資料의 交換 등을 약속하였다.

大學의 본질상 敎授·學生의 學術硏究活動을 조장하고 고무하기 위하여 大學院 敎育에도 역점을 두고 있다. 인근에 있는 科學技術硏究所 연구원과의 兼任敎授制라든가, 海外碩學 또는 國內著名學者의 硏究敎授制의 施行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수 교수 인력의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이와 같이 21 세기를 향한 본 대학의 자세는 매우 전진적이고 의욕적이다. 금년에는 新入生 志願率이 전기에는 평균 9.7 : 1 이었으며, 후기에도 4 : 1 을 넘어 섰다. 따라서 해마다 新入生의 質이 많이 向上되어, 본 대학의 착실한 발전에 발맞추어 우수한 학생들이 쇄도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으로 미루어 안정된 대학의 분위기와 나날이 발전해 가는 본 대학을 江湖의 諸賢께서 認定해 주시는 결과가 아닐까 하고 만족해 하고 있다. *